

# MILAN DESIGN WEEK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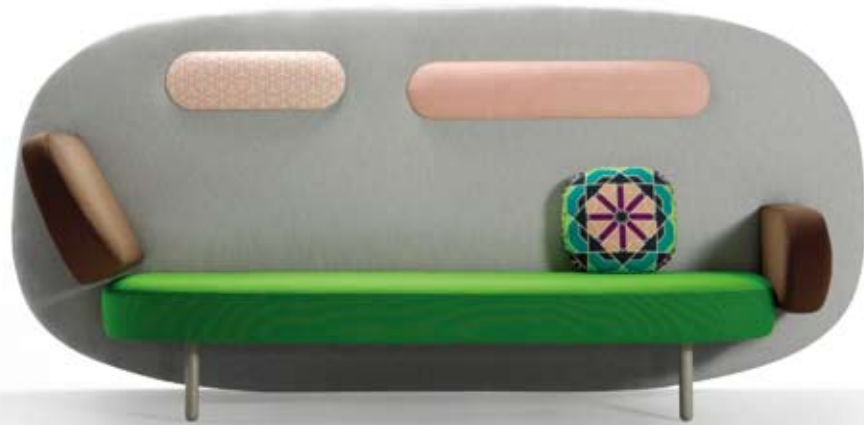


As 51st exhibition this year, Saloni has confirmed its position as global exhibition in home furniture division by presenting high quality products for global market. The exhibition was held from 17 to 22 April at 209,000m<sup>2</sup> of Milan exhibition venue in RHO, 2,500 people participated to the exhibition and more than 300,000 visitors from 160 countries came to see high quality products and participating companies. Also, the campaign 'Milan, where else?' was held at the same time and presented confidence of Milan as the center of furniture. Especially, for the first time EuroCucina presented kitchenware and accessories to the public and together with this, TFK(Technology For the Kitchen)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of home equipment and cooking utensils were displayed in 9, 11, 13 & 15 pavilions. In the opposite exhibition halls, 22 & 24 pavilions, the international bathroom exhibition by international designers was held. For its 15th this year, under the theme of 'Design ↔ Technology', SaloneSatellite provided exhibition experience and opportunity to contact participating companies along with talented international designers' works. Salone Internazionale del Mobile which provided an opportunity to take a glance at the year's trend through new furniture and accessories that international enterprises presented for 2012 had three themes of 'design', 'modern' and 'classic' as usual. Each enterprise designed huge booth according to its characteristic and theme of brand over eight halls of 5, 6, 7, 8, 10, 12, 16 & 20 and provided interesting attraction with furniture and also with booth design. Besides these five exhibition halls including EuroCucina, the architect Piero Russi who designed gallery and stadium of SaloneUfficio in 2011 designed a well-being space IN-Balleza(IN-Beauty) within the exhibition and provided services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Besides fair in RHO, Brera Design District presented 89 event spaces and showrooms at Fuorisalone 2012 and Tortona Design Week was held at Via Tortona and neighboring area to introduce local culture to overseas' visitors and to enhance creativity of many companies. Moreover, design related events were held all over Milan including Museo Nazionale Della Scienza e Della Tecnologia Leonardo Da Vinci and corso como and the entire Milan was the place of festival. Report & Text by Kim Eunsu

올해로 51회를 맞이하는 살로니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고품질의 제품을 선보이며 홈 가구 부문의 세계적 전시 공간으로서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전시는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로에 위치한 209,000㎡ 규모의 밀라노 박람회장에서 열렸으며, 2,500여 명의 전시자가 참여하고, 160여 개국에서 300,000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고품질의 제품과 전시 업체를 보기 위해 방문했다. 또한, 박람회에는 '밀라노가 아니면 어디에서?' 라는 캠페인이 함께 열리며 가구 중심지로서 밀라노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다. 특별히 이번 해에는 최초로 주방 장비와 액세서리를 전시한 유로쿠치나가 대중에게 선보여졌으며, 이와 함께 가정용 기기와 조리가구의 기술적 혁신에 초점을 둔 TFK(주방을 위한 테크놀로지) 전시가 9, 11, 13, 15 파빌리온에서 함께 진행됐다. 맞은 편 전시장인 22, 24 파빌리온에서는 국제적인 디자이너들이 제작한 국제 욕실 전시가 열렸다. 올해 150회째를 맞이한 살로네 사텔라이트의 주제는 '디자인 ↔ 테크놀로지'로, 재능 넘치는 국제적 신생 디자이너의 작품 전시와 함께 이들에게 전시 경험과 전시 업체와의 연락 기회를 제공해줬다. 국제적인 기업들이 2012년에 새롭게 선보이는 가구와 액세서리를 통해 한 해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살로네 인테르니치오날레 델 모바일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디자인', '모던', '클래식'의 세가지 테마로 나누어졌으며, 그 중 5, 6, 7, 8, 10, 12, 16, 20의 8개의관을 차지한 디자인관에서는 각 기업이 거대한 규모의 부스를 브랜드의 성격과 테마에 맞춰 디자인함으로써 가구는 물론 부스 디자인에서도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유로쿠치나를 비롯한 5곳의 전시 공간 이외에도 2011년 살로네유폴리시오의 갤러리와 스타디움을 설계했던 건축가인 피에로 루씨가 전시장 내에 IN-벨레자(IN-뷰티)라는 웰빙 공간을 디자인하여 전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로에 마련된 박람회장 이외에도 브레라 디자인 디스트릭트가 2012년 푸오리살로네에서 89건의 이벤트 공간과 쇼룸을 선보였으며, 비아 토르토나 및 주변 지역에서 토르토나 디자인 위크가 열려 해외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문화를 소개하고 여러 업체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됐다. 그 밖에도 레오나르도 다 빈치 국립 과학기술 박물관과 코르소 코모 등 밀라노 곳곳에서 다양한 디자인 관련 행사들이 열리며 밀라노 지역 전체가 축제의 장이 됐다. 취재·글 : 김은수 기자







1



2



3



4



5

## SALONE INTERNAZIONALE DEL MOBILE, DESIGN

**1. FLOAT / SANCAL :** <Float> is a contemporary couch designed for multiple purposes. This slim floating seat with incorporated back wall provides complete privacy in open spaces, to rest back on, hang one's scarf or coat on. Designed by Karim Rashid

**2. GRADIENT / PLUST :** Modular partition made up of two pieces of different heights. Two or just a few combined space dividers can create a kind of gardens of rows of out of scale grass. Designed by Mut Design

**3. JELLY HAPPINESS CLUB COLLECTION / ADRENALINA :** The Jelly is a sofa that looks like a sweet and involves many senses at the same time. Its vintage and state-of-the-art design reminds of good feelings, positivity, happiness and subtle joy that come from its disarmingly sleek lines. Designed by Simone Micheli

## 살로네 인테르니치오날레 델 모바일, 디자인관

**1. 플로트 / 산칼 :** <플로트>는 다양한 용도에 알맞게 디자인된 현대식 의자이다. 길쭉하면서도 떠 있는 듯한 앉는 부분과 등받이 벽을 가진 제품은 개방된 공간에서 철저한 프라이버시를 확보해주며, 높은 등받이 벽이 만들어내는 격리된 영역에 기대어 앉거나, 스카프나 외투를 걸어놓을 수도 있다. 디자인 : 카림 라시드

**2. 그라디언트 / 플러스트 :** 이 제품은 서로 다른 높이의 두 요소로 만들어진 모듈식 칸막이다. 공간을 두 개, 혹은 몇 개로 구획해주는 이 요소들은 실제보다 큰 크기의 잔디 형상으로 만들어져 일종의 정원 같은 모습을 형성한다. 디자인 : 무트 디자인

**3. 젤리\_해피니스 클럽 컬렉션 / 아드레날리나 :** <젤리>는 감미로워 보이는 동시에 여러 가지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소파다. 이 소파의 빈티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은 좋은 느낌과 능동성, 행복감, 알 수 없는 기쁨에 젖어들게 하며, 이러한 감정들은 순수하고 매끄러운 선들에서 비롯된다. 디자인 : 시모네 미첼리

**4. HOC / BRUNNER :** The <hoc> is a new 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stool; a stool made of form wood with an extremely reduced designed. Its three identical legs combine to create the seat in an elegant line. The inlay of the wood emphasizes the reduced, straightforward use of forms. Designed by jehs+laub

**5. BIANCANEVE / KUBEDESIGN :** It is floor lamp of three-dimensional cardboard that has wide choice of colors available. Also it is easy to take away, suitable for all contexts.

**4. 혹 / 브루너 :** <혹>은 전통적인 스톨을 새롭게 재해석한 스톨로, 폼우드로 만들어졌으며, 아주 깔끔한 디자인을 하고 있다. 같은 형태의 세 개의 다리는 서로 연결되어 격조있는 곡선의 앉는 부분을 형성하고, 덧씌워진 목재는 소박하면서도 단순한 형태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디자인 : 예쉬+라움

**5. 비안카네베 / 쿠베디자인 :** 제품은 색깔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입체적 판지로 이루어진 바닥 램프로, 철거하기 쉬우므로 어느 곳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1



2



3



4



5

## SALONE INTERNAZIONALE DEL MOBILE, DESIGN

**1. NÁUTICA / EXPORMIM S.A. :** <Náutica> is a hanging chair. As it hangs from a tree branch, or from a free-standing structure, Nautica stands out for the subtle play of shadows it creates as it moves - shadows which suggest the play of sunlight on ocean waves. Designed by Mut Design

**2. PANORAMA\_FIAT 500 DESIGN COLLECTION / MERITALIA :** The sofa <PANORAMA> has a steel perimeter frame that reproduces the frontal part of the 70's FIAT 500. The covers, in fabric or leather, the geometrical pattern stitching and side wheels made out of polyurethane add stylish details to this furniture making it unique in its genre.

**3. CHARIOT / CASAMANIA :** Chariot is a mobile table consisting of three simple elements joined together; wheels, trays and structure. The wheels, which in common carts are usually small, are brought to the extreme size, becoming the iconic element of the project. The two trays act as storage compartments, the metal structure is also a handle; slightly raising the cart. Designed by GamFratesi

## 살로네 인테르니치오날레 델 모바일, 디자인관

**1. 노티카 / 익스포뮴 S.A. :** <노티카>는 그네 의자다. 나뭇가지나 독립된 구조체에 매달리도록 제작된 노티카는 움직일 때마다 미묘한 그림자를 드리우며, 이 그림자는 파도 위에 넘실거리는 햇살과 같은 효과를 낸다. 디자인 : 무트 디자인

**2. 파노라마 피아트 500 디자인 컬렉션 / 메리탈리아 :** <파노라마> 소파는 70년대에 출시된 피아트 500의 앞부분을 부활시킨 형태의 철재 테두리 프레임으로 만들어졌다. 천이나 가죽으로 만들어진 커버와 기하학적 모양의 스티칭,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이드 휠은 이 가구에 멋진 디테일을 형성하며 아주 특색 있는 소파로 만들어 준다.

**3. 마차 / 까사마니아 :** <마차>는 서로 연결된 세 개의 단순한 요소, 즉 바퀴와 쟁반, 구조물로 이루어진 이동식 테이블이다. 크기가 작은 일반 이동식 바퀴와 달리, 극도로 크게 만들어진 바퀴는 이 프로젝트의 상징적인 요소가 된다. 두 개의 쟁반은 수납 역할을 하며, 금속성 구조는 핸들로 사용될 수 있다. 디자인 : 감프라테시

**4. BUNNY CHAIR / NORMANN COPENHAGEN :** With its soft, voluminous forms, <Bunny chair> can be entices you to have a seat and savour its embrace. The chair's cheeky and playful design is further emphasised by the tightly-strapped strings wrapped around the soft, upholstered body. Designed by Iskos-Berlin

**5. DISFATTO SOFA / D3CO :** <Disfatto> is a sofa that expresses the original idea of comfort. It is a wooden structure that is essential, on which rests the very large padding that can be arranged and laid according to the shape and function we want to give to our sofa. Designed by Denis Guidone

**4. 토끼 의자 / 노만 코펜하겐 :** 부드럽고 볼륨감 있는 형태의 <토끼 의자>는 사람들에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거나, 포근히 감싸주는 느낌을 만끽하게 해준다. 부드럽고 폭신한 의자의 몸체를 감싸며 촘촘하게 묶인 끈들은 의자 디자인에 익살맞고 재미있는 모습을 더해준다. 디자인 : 이스코스-베를린

**5. 디스파토 소파 / D3CO :** <디스파토>는 소파의 근본 원리인 편안함을 표현해주는 제품이다. 기본 요소는 목재 프레임으로, 여기에 커다란 패딩이 들어가 제품이 완성되며, 패딩은 사람들이 저마다 원하는 모양과 기능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될 수 있다. 디자인 : 데니스 가이든



## SALONESATELLITE

**1. COAT STAND 'HANGMAN' / ŽELJKA KAVRAN :** Translated to an object, a <coat stand 'Hangman'> is light and simple in form, but useful in function as a hallway peace. It is elegant in form, evoking the feeling of a childish nostalgia.

**2. ROSARY LAMP\_ENLIGHTENMENT SERIES / BORIS :** The Rosary necklace is the inspiration for this lamp design. Traditionally each bead in a rosary represents one word in a prayer. The beads illustrate the event of things and how you have to move step by step to reach your final goal.

**3. DIGGA / CREATIVEANS :** <Digga> series pendant lamp offers a new take on Asian traditional birdcage. Using silhouette cues from a birdcage and cover, <Digga> projects warmth and the soft material of the lamp cover allows users to manipulate to their desired shape and its light angle.

## 살로네 인테르니치오날레 델 모바일, 디자인관

**1. 옷걸이 '행맨' / 젤리카 카프란 :** 오브제적인 제품으로 변형된 <옷걸이 '행맨'>은 가볍고 단순한 형태를 띠지만 현관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제품은 어린 시절의 향수를 되살려 주는 우아한 형태를 띤다.

**2. 목주 램프 깨달음 시리즈 / 보리스 :** 이 램프에 영감을 준 것은 목주로, 천주교에서는 전통적으로 각 구슬 하나하나가 기도자의 말 한마디를 의미한다. 구슬은 사람과 사물 간의 이벤트를 나타내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떻게 한 단계씩 움직여 나가야만 하는지를 말해준다.

**3. 덩가 / 크리에이티브스 :** <덩가> 시리즈의 펜던트 램프는 아시아의 전통적인 새장을 새롭게 되살려 놓은 제품이다. 새장과 덮개의 그림자에서 영향을 받은 <덩가>는 따뜻한 느낌을 발산하며, 필요할 때 언제든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램프 커버를 이루는 부드러운 재료를 통해 사용자들은 원하는 모양과 빛의 각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4. Ceppo / marama :** Ceppo recalls the chunk of wood, a cult, the classical chunk of timber used as a seating.

**5. Sofa / Antoinette Bader :** The three single foam mats covered with different colored textiles are connected to the wooden bench by a cord. The bended mats create the sofa's special shape and two cosy corners.

**4. 체포 / 마라마 :** <체포>는 나무 장작과 토속적 제례, 앉기 위해 사용된 고전적인 통나무를 연상시킨다.

**5. 소파 / 앙투아네트 바더 :** 제품은 같은 형태이지만 서로 다른 색채와 질감으로 마감된 세 개의 매트가 서로 끈으로 연결되어 형성된 목재 벤치이다. 휘어진 매트는 소파의 독특한 형태와 포근한 양쪽 모서리를 만들어 낸다.





#### TORTONA DESIGN WEEK

1. Mooi Milan showroom
2. Passing On Project 'Touch to turn light into delight'
3. CASSINA Design Village 2012

4. Established & Sons Milan 2012
5. Furniture performance on the street in Tortona





1

## TORTONA DESIGN WEEK

**1. CAPPELLINI NEXT / CAPPELLINI:** <Cappellini NEXT - projects in progress from the world> is a hanging exhibition that best expresses the soul of exploration and research that takes place at Cappellini. The projects selected by Cappellini are international in scope, and are a clear expression of the geographical and cultural influences of the environment on the designers.

**2. FEDRO / DEMON:** A chair without legs, <FEDRO> represents a groundbreaking new concept in seating. Ergonomic in design, it balances on two narrow skids, allowing you to rock back and forth as you please. Designed by Lorenza Bozzoli

## 토르토나 디자인 위크

**1. 카펠리니 넥스트 / 카펠리니 :** <카펠리니 넥스트 -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카펠리니의 탐험 정신과 연구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전시다. 카펠리니가 선택한 국제적인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디자이너에게 미치는 환경의 지리적 영향과 문화적 영향을 명쾌하게 표현해준다.

**2. 페드로 / 데몬 :** 다리가 없는 의자인 <페드로>는 의자와 관련한 새롭고 획기적인 원리를 보여준다.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의 의자는 좁은 바닥 두 개에 의지해 균형을 이루고, 이러한 구조에 의해 원하는 대로 앞 뒤 방향을 움직일 수 있다. 디자인 : 로렌차 보졸리



2



3



4

**3. MELT / K% :** The outline of this chair describes a continuous curve from the back legs through the backrest, arm and front legs. A form is in which all of the structural elements of a chair seem to melt into one. Designed by ne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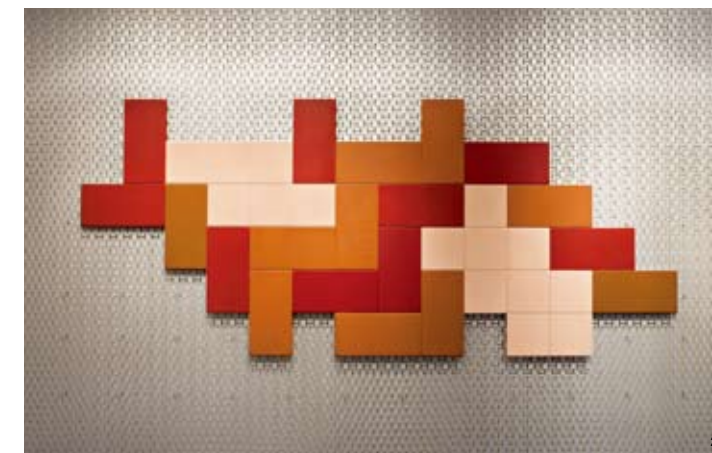
**4. TABLE / FIBandCO :** Its surface becomes animated by a very elaborate pattern. It is screen printed and acts like an optical illusion with a skillful moire effect. Designed by Normal Studio

**3. 녹다 / K% :** 이 의자는 뒤쪽 다리에서부터 등받이와 팔걸이, 앞쪽 다리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선을 가진다. 이러한 형태는 마치 의자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한 데 섞여 있는 듯 하다.

디자인 : 낸도

**4. 테이블 / 피브앤코 :** 테이블의 표면은 아주 정교한 패턴에 의해 생동감이 넘친다. 표면은 프린트가 들어간 스크린으로 이루어 졌으며, 물결 무늬와 같은 무아레 효과를 내며 시각적 환영처럼 작용한다. 디자인 : 노멀 스튜디오





## FUORISALONE 2012

1. <The Secret Garden> : The Orto Botanico (Botanical Garden) in Brera is a pleasant spot, largely unknown, in the heart of Milan. It is here that Barovier& Toso and Citco have decided to present <The Secret Garden>, a display event in which each can convey their particular specialities, one in the working of blown glass to make lighting installations and chandeliers, the other in the production of inlaid marble for surfaces, walls and floors.

2. <MODULE H> by Hermès : With the creation of <MODULE H>, a modular system of architectural elements for walls and partitions, Hermès is sculpting interior space, echoing the surfacing for apartments. This year, Shigeru Ban, who architect known for his light and modular structures, was invited for develop this concept.

3. <Aspiranti Aspiratori> : Elica and the Ermanno Casoli Foundation presented <Aspiranti Aspiratori>, a solo exhibition by the artist Sissi, staged at the Elica AirFactory in the Brera district and open to the public. The set-up of the exhibition is organised by the Salottobuono architectural company. A simple curtain encloses the spaces set aside for display of the prototypes and screening of the video. The volume defined by the curtain is backlit by neon lights mounted on chromed steel tubes.

## 푸오리살로네 2012

1. <시크릿 가든> : 브레라의 '오르토 보타니코(식물원)'는 대체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밀라노 중심의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이다. 바로비에르&토소와 시트코는 이곳에서 <시크릿 가든> 전시를 열었으며, 한 업체는 조명 기기와 샹들리에를 만들기 위한 유리 부는 작업을, 다른 한 업체는 벽이나 바닥 표면의 대리석을 만드는 작업을 선보이며 각자의 특수한 전문성을 발휘했다.

2. 에르메스의 <모듈 아쉬> : 건축학적 모듈 시스템인 <모듈 아쉬>는 'H' 격자 문양의 알루미늄 모듈을 벽면에 홀딩 구조물과 패브릭이 씌어진 기하학적 패널을 반복적으로 결합한 벽면 커버링 시스템이다. 이 새로운 콘셉트를 개발하기 위해 에르메스는 모듈식 구조물로 유명한 건축가 시게루 반에게 협업을 요청했으며, 그는 에르메스만의 'H' 격자 문양 알루미늄 모듈 시리즈물 등의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했다.

3. <아스피란티 아스피라토리> : 엘리카와 에르마노 카솔리 재단은 예술가 시씨의 단독 전시회인 <아스피란티 아스피라토리>를 개최했으며, 전시는 브레라 지역에 있는 엘리카 에어팩토리에 마련됐다. 전시회의 구성물들은 살로토부오노 건축 사무소에 의해 설치됐는데, 전시는 프로토타입을 전시하고 비디오를 틀 수 있도록 평범한 커튼이 공간을 에워싸도록 만들어졌다. 이 커튼은 두 개 층의 쇼룸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도록 설치됐으며, 크롬으로 도금된 관이 씌워진 네온 등을 통해 발생한 역광이 이 커튼이 만들어내는 볼륨을 비추고 있다.





#### FUORISALONE 2012

**1. <JAPAN CREATIVE>** : The theme of this exhibition is 'Simple Vision', and the works on display are the prototypes of six ongoing projects for which manufacturers and designers are working together. Manufacturers for the projects have been selected from diverse fields, including traditional crafts, traditional industry, and Leading-edge technology.

**2. <AUSTRIAN DESIGN - RAW AND DELICATE>** : Advantage Austria (AWO) is organising a special show for Austrian furniture and product design at the Salone Internazionale del Mobile.

**3. VIGNA / MAGIS** : The chairs made by frame in steel rod, cataphoretically-treated and painted in polyester powder. It is suitable use for outdoor. Designed by Martino Gamper

**4. ZOO / ASPLUND** : An exclusive mini table designed with a set of unusual legs that resemble an animal walking. It can be made in solid brass, copper or stainless steel. It can be used as a standalone coffee table or combined with other pieces. Designed by Eero Koivisto.

#### 푸오리살로네 2012

**1. <크리에이티브 일본>** : 이 전시의 주제는 '심플 비전'으로, 전통 공예와 전통 산업, 최첨단 기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된 제조사들과 디자이너들이 합작하여 6개의 프로토타입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2. <오스트리아 디자인 - 원초적이고 섬세한>** : 어드밴티지 오스트리아 (AWO)가 밀라노 국제 가구 박람회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 가구와 제품 디자인을 위한 특별 전시를 개최했다.

**3. 비그나 / 마지스** : 의자는 전기이동 처리가 되고, 폴리에스테르 분말로 도장된 철골로 만들어졌다. 디자인 : 마르티노 감페르

**4. 동물원 / 아스플룬드** : 특이한 다리들로 디자인된 고가의 이 미니 테이블 제품은 동물의 걸음걸이와 그 모습이 흡사하다. 제품은 단단한 놋쇠와 구리,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지며, 높이가 20cm인 제품은 분리형 커피 테이블로 활용하거나, 다른 가구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디자인 : 에로 코이비스토





1. Exhibition of Domus and Audi at the Palazzo Clerici
2. R18 ULTRA CHAIR - PUBLIC BETA installation, Designed by Clemens Weisshaar and Reed Kram for Audi
3. THE FUTURE IN THE MAKING exhibition, Endless Robot by Dirk Vander Kooij.

4. THE FUTURE IN THE MAKING exhibition, Solar Sinter by Markus Kaiser
5. THE FUTURE IN THE MAKING exhibition, Endless Furniture by Dirk Vander Kooij





1. Exhibition at the Museo Nazionale della Scienza e della Tecnologia Leonardo da Vinci  
 2. 'Searching for Cassiopeia', Fabrica for Italian Chair District

3. 'Paper Music' by molo collaborating with sound artist Ethan Rose

4. SodaStream Source by Yves Béhar  
 5. 'la cura' by Studio Toogood with NIVEA

6. Tom Dixon's Luminosity exhibition